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1면
가. 문화복지국 소관	1면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52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는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10시0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가. 문화복지국 소관

○위원장 안정근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문화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9페이지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참고자료에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여기 소요예산에 지금 시비가 안 들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올해 충남도 하고 저희하고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당초 계획안 기본 계획안은 토지는 아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건물은 도에서 예산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도에서 바뀌가지고 도 토지와 건물이 재산관리관이 이원화 되면 나중에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도비 토지 매입비까지 도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장비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도에서 협의는 왔었지만 아직 건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시에서 어떤 장비 부분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 경기장 건립안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시비를 덜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

지만 다른 의미에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시가 원하는 부분들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문화예술과 내용을 보면 e스포츠에 대해서 이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좀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가 무조건 시비를 아예 안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추후 충남도와 업무협의를 해서 이게 아산시에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맞는 거니까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거 갖고 오는데 힘들었잖아요.

천안이랑 아산이랑 경쟁을 해서 겨우 겨우 아산이 가져 왔는데 아산이 지금은 너무 건립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도와 업무협약이 조금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0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쪽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당장 사업으로 봤을 때는 2024년 운영계획에 1월에 신년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4년도 신년음악회는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출연금에도 세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올해 23년도에 경찰병원 유치를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고 24년도에도 신년음악회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진행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1월이면 언제쯤으로 바라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것은 1월 15일 이후, 1월 중에는 해야 신년음악회라는 이런 타이틀이 어울려서 1월 중순 이후 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는 보니까 65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부금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을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년음악회를 할 수 있는 정규화된 공연장이 없어서 경찰인재개발원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출연진부터 그다음에 음향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 따졌을 때 1억 정도 소

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드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을 때 결과보고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 사업은 지금 재단 사업은 건건히 출연금 사업이기, 출연금이든 기부금 사업이든 건건히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진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결과보고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번 신년음악회 계획안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계획안 아직 없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날짜와 어떤 출연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만 있는 거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재화된 문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잖아요, 계획안은,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날짜와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미성 위원 아니, 결재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계획안이 없어서 만들고 있다는 중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걸 갖고 제가 정보를 볼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원 사업인데 그러면 자체투자심사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자체 투자, 출연금 사업으로 해서 자체투자심사 다 받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투자심사 받은 내용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거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미성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시면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자료에 대해서도 문서 생산 일자도 같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문서 생산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김미성 위원 그럼 바로 만들어서 주신다는 거군요, 저한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예, 결재를 진행을 해서,

○김미성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투자심사 날짜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순신 축제가 4월에 보면 한 18억 정도 됐는데 이것도 45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도 계획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이것도 수립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고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없는 걸로 보고 K-트롯 가요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진행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에 진행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올해도 진행을 했죠.

그 결과보고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결과보고서, 예.

○김미성 위원 예, K-트롯 가요제 결과보고서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국제민족무용축제가 올해도 이뤄졌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10월에.

○김미성 위원 그게 출연금으로 했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 문화

예술단체, 전문 단체에서 무용지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무용지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아, 예, 이것도 같이 결과보고서 존재하죠,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정산이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미성 위원 만약에 정산이 됐다면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JAZZ페스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것도 지금 보통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결과를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결과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전문 용역은 저희는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3억 5천 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면 제가, 잘 아시겠지만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어떠한 부분도 좀 시정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것도 지금 재단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보고서가 지금 작성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사업은 하나 끝났다고 해서 바로 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미성 위원 그러면 재단 사업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신년 음악회도, 이거 재단 아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재단 사업이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재단 사업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신년음악회랑 JAZZ페스타도 재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재단 내부적으로 관련해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100인100색전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사업이었는데 또 2억 9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올해 2억을 하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 참여작가들한테 일정 부분의 페이는 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 2억 사업 중에 그 페이로 나가는 부분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이렇게 지역 작가들한테 페이를 줘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올해보다 좀 더 국제 작가들이 올해 열여섯 분 정도 소규모 국제 작가 작품을 받아서 저희

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100인100색전 언제까지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금 공식적으로 12월 25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12월 25일까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참 2억 9천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3억이 넘어가면 도에서 심사 받지 않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걸 제대로 하려고 예산을 늘린다고 하시는 건데 제대로 한다면 정말 도에서 심사 받아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1000만 원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17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추진실적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이 중에 에이블아트라고 장애인 미술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있고 네트워크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거는 생활문화센터가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가 2개소가 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가 1개가 있는데 에이블아트는 재단에서 출연금 내에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 마

음생활문화센터가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입니다.

거기에 일련 사업으로 해서 에이블아트, 우리가 썸머페스티벌 때 그 옆 부분에 장애인 관련 작품과 아티스트 작품 등을 전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하고 네트워크지원예정?

○김미성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거는 23년도에 저희 생활문화센터 하부사업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것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이 부분은 제가 2차 전시한다고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 다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재단에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문화재단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사실 이렇게 장애인 관련된 예술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요.

에이블아트 사업이랑 네트워크지원사업, 어떻게 올해 진행했는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재단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네트워크지원사업도 이게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트워크지원사업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게 지금 제가 자세히 볼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보는 거는 예산 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청년지원사업 청진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걸로 아는데 언제 시작한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니고 23년도에도 했던 거고 그전에도 청진기 사업이라고 해서 도의원 재량 사업비가 붙어서도 한 적이 있고,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김미성 위원 아,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했던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올해는 사업이 마감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올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것도 어떻게 그동안 진행을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올해 사업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성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10페이지 보면 아트밸리 신년음악회 있고요.

성웅 이순신 축제 있고요.

그다음에 100인100색 있고요.

제2회 외국인 K-다시 트롯 가요제 있고요.

국제민족무용축제있고요.

JAZZ페스타, 아트밸리 아산 영화제, 올해 처음의 계획하고 예산 세웠던 거 하고요.

24년도에 할, 아, 계획, 예산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집행 내역서, 영수증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도의 계획과 예산,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39페이지인데요.

삼도수군통제영 위병교대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번에 추경 때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삼도수군통제영에 대한 프로그램의 한계점,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번에 보완을 해서 삼도수군통제영 프로그램이 꼭 지역 어느 장소에 한정된 게 아니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보완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삼도수군통제영 위병교대식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조금 알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삼도수군통제영이 저희 프로그램을 할 때 역사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수군통제의 교대식을 하면서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곳이 있고 그리고 현재 경북궁이라든가 궁궐 외에 수문장, 장소에 대한 궁에서 진주성 같은 경우에는 성벽을 지키는 그곳

에서의 교대식을 해서 관광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내용에 교대의식 고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고증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고증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조선시대의 복장에 맞는 그런 고증을 거쳐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어쨌든 고증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얘기 들어보면?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지금 저희가 고증을 어떻게 이게 맞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김미성 위원** 지금 시에서는 파악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고증 복장에 대한 것,

○**김미성 위원** 복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계속 여쭙보는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삼도수군 그 당시에 있다, 없음을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김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파악했는지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예, 이거 너무 길게 끌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39페이지 이거 관련돼서 운영 사례 조사하고 벤치마킹 추진한 거 결과보고서 그거 하나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안인데요.

이거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 중에서는 이 부분이 관광과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시에서도 큰 열개 정도는 잡고 들어가야 계획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오게 된 배경과 이후에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아산시가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사업을 수립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산시는 일단 외부에서 비취질 때도 그렇고 저희도 산업도시라는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충사 정도가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아산시는 관광 10선을 비롯

하여 온천도시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야간 관광에 대한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국내의 관광동향이라든지 저희 아산시에 맞는 종합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 플러스 야간 관광에 대한 트렌드에 맞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천도시로서 온천진흥계획, 이거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엮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6월에서 9월, 한 3개월 정도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1년 정도 걸린 거죠.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개발계획이 몇 개년 계획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몇 년부터 몇 년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한 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5년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온천관광특구는 5개년마다 돼 있고요.

이거는 종합개발계획은 5년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내다 보고,

○김미성 위원 아, 그럼 굉장히 큰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세워야 되지 않을까,

○ **김미성 위원** 10년이요?

○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1억 5000만 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 상황은 사실은 18년도에도 1억 2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했던 계획이 분명히 했을 텐데 아산시청 내부적으로 관광과 내부적으로 2018년도에 수립했던 계획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한 고민이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진단한 자료는 없고요.

그 당시에 했던 게 저희가 예전보다 시대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트렌드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성 위원** 아, 그 지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10년 단위의 계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굵직한 계획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온천관광은 법적으로 해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 **김미성 위원** 아, 예, 그거는 말씀하셨고,

○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 **김미성 위원** 관광종합개발계획은 10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굵직한 계획이고 관광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과장님 여기 의회에 나올 때

마다 항상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산 관광은 이모양이나?’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계획을 수립한다, 이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아산시만의 고유한 계획과 고민들이 굉장히 부재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적어도 정말 기본적으로 18년도에 했다면 제가 의원이어도 그 계획을 보고 ‘아, 이런 부분들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해서 그게 있었던 걸 제가 알았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용역비만 세우는 그냥 기승전용역, 이런 방식은 아산시는 좀 탈피해야 되고 특히 관광이라는 부분은 아산시의 가장 아쉽고 취약한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말 기초적으로 해야 할 것들,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겠다, 그런 거는 결국에는 담당 과장과 실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를 하실 때.

○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그래서 저희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 관광개발전략, 사업개발계획,

○ **김미성 위원** 그거는 다 알죠, 알개는.

○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예.

○김미성 위원 그거는 당연히 들어갈 형식적인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하시기 전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2페이지 충·효·애 치유관광더하기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운구행렬 활성화 사업으로 순국제전이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 장, 단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7억 원 정도 진행을 하다가 2024년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뭐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각 연도마다 배정된 금액이 있었고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순신 순국제전을 민간에서 준비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국제전은 충효애 사업 경상 사업 중에 제일 비중있는 큰 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문화재, 문체부하고 문화관광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조금 더 내실있게 해 보자 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겹치는 측면이라든가 다른 사업

비가 중복되는 부분 이런 사업을,

○김미성 위원 다른 사업들을 줄이고 순국제전에 예산을 넣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넣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 질의를 길게 이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예.

○김미성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7억 원 정도 순국제전이 있는데 내년에는 2억 8천 정도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쭙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24년도 예산은 올해는 처음이고 이렇게 큰 규모로 했던 게 처음이고요.

처음이다 보니 하드웨어적인 필요한 측면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측면이 있었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절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 배정되는 예산이 2억 8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걸로 순국제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산에 배정된 예산이 2억 8천…….

○김미성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올해는 7억 원 정도 다 소진,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잔여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

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순국제전에 대한 예산이,

○**김미성 위원** 그렇죠?

잔여 예산은 그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잘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개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는 아직 없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거 경쟁입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 사업 진행할 때, 순국제전?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제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입찰 당시 들어왔던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서류 다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지금 53페이지에 지금 현충사 리브랜딩 충효애 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현충사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관광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현충사 야간 콘텐츠 개발과 또 이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충사 리브랜딩을 할 때 갖고 있었던 우리만의 자료와 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런 것들을 단순히 연구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이 계획과 연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런 고민들을 녹아내릴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가 관광 리브랜딩, 달빛야행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고 그리고 반응이 워낙 좋았었고 2022년도에도 저희가 했었고 23년도에는 문화유산과에서 저희 과랑 같이 합심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간 관광에 대한 트렌드, 이런 측면과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맥락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현충사 야간 관광, 달빛야행에 대한 것은 정착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아산시의 큰 관광 프로그램으로서 발전시키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국비 사업인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자원들이 현재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야간경관 계획이라든지 정말 10개년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54페이지인데

요.

이순신 문화 콘텐츠 브랜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에 24년도에 이순신 뮤지컬 필사극생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계획된 사업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이순신 춤극은 원래 기본에,

○김미성 위원 춤극은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23년도에 난중일기 칸타타라는 공연으로 해서 가무악 정도로 음악과 연결된 측면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조금 더 춤에 대한 뮤지컬적인 측면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만의 이순신의 특별한 뮤지컬을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 하에 뮤지컬로 이순신 뮤지컬 필사극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4월이면 공연을 4월에 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용역계약 체결은 1월에 하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사업 변경 승인 같은 건 필요 있습니까, 이걸 만약에…….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이 사항은 춤극 기존에 했던 이순신 뮤지컬 칸타타 그 내용 플러스 뮤지컬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에 춤극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일 수도 있지만 가미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닥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문체부 사업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냐고 여쭙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이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예,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춤극과 어떻게 이게 연계가 되는 건지 뮤지컬이 그거는 제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큰 의미의 춤극 속에는 뮤지컬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지금 1월에 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이거 같은 경우도 사업 계획안 같은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거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인데요.

이순신, 플랫폼 활용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는데 여기 웹툰 제작이 올해 처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24년도에는 이순신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웹툰을 제작을 해서 공식으로 연

계를 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상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이순신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순신 도시 홍보하는 데 전대 흐름에도 맞고 SNS라든지 그런 거에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순신 웹툰 제작은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웹툰은 저도 압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이순신 장군의 아시다시피 일생 어려서부터 전쟁 이런 것까지 일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넣게 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이것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제작 완료가 3월에 제작 완료가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열개가 잡혔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사업 내용도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이순신 성장놀이터 조성인데 이게 지금 곡교천 일원에 이렇게 이순신 생애를 컨셉으로 해서 한 섹션은 성장, 한 섹션은 고난,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콘텐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콘텐츠는 어떻게 이 하

드웨어에 녹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이순신의 성장, 역경, 자랐을 때의 과정을 명품이야기꾼 사업 연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성장놀이터 곡교천 생태도보길 조성사업을 실시했는데 생태도보길 조성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서 큰 부착물이라든지 큰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 상황은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태도보길로 해서 걷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이 돼서 지금 22년도에 시행을 해서 1차 사업은 끝났고요.

내년에 2차 사업을 실시를 지금 실시하는 중인데,

○김미성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드웨어에 어떻게 콘텐츠를 녹일 것인지 그 고민을 여쭙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성장이야기부터,

○김미성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런 컨셉이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거기에 어떻게 표지판을 넣는다든지 어떤 스토리를 입힌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쭙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래서 도보길에는 제가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걸을 수 있는 약간 매트 같은 그런 거를 깔고 중간중간에 이순신 성장에 대한 초화류를 지금 심어놨습니다.

심어왔고 그 주변에 이순신 성장에 대한 그에 맞는 어울리는 구조물은 작은 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충효애 사업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지금 TF 만들어 졌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웹툰도 만드신다고 했고 미디어 파사드도 하고 콘텐츠 개발도 하고 다양한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하드웨어에 어떻게 녹일 것인지 그런 연계하는 고민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연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거 24년도에 끝나죠?

내년에 끝나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성과 내야겠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우리가 그동안 항상 이순신, 이순신 외치는데 그동안 이순신으로 마케팅 되지 않았고 타케팅 되지 않아서 이번에 문체부 사업을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자라고 해서 당시 국장님도 열심

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갖고 온 사업 아납니까?

그래서 TF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순국제전은 거기에 돈을 갑자기 7억을 투입해서 올해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2억으로 급감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돈을 갖다 쓰는 사업밖에 우리 아산시가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적어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이 관광진흥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주소는 이렇고요. 이후에 2024년도에 이러한 성과를 내서 정말 어떤 이순신을 통한 브랜딩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업무보고 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순국제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20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거고 24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19년도부터 코로나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22년도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랑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추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 7월에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순국제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모신청했을 경우에 이 정도 규모면 가능하겠다 싶은 내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리운 사람 이순신 컨셉으로 이번에 순국제전을 치렀는데 여기에 대한 관광자원화 되는 측면에서 좀 더 이쪽 방면에 활성화 시켜 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변경된 측면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 기간은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하드웨어 얘기 하셨는데 수레바퀴 빠진 거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그거는 차치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김미성 위원 지금 충효애 사업,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저는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초반에 열심히 뛰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그동안 지지부진 했는지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김미성 위원 이거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만큼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 낼 것인지 국장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러한 언성을 높이거나 불쾌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본 자료 352페이지고요.

보충자료는 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산 온천과 관광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은 엄청 하고 계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온천치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온천치유센터가 지금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뷰티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하부공간은 원래 목적이 온천의 관련 사업으로 하계꿈 문체부에서 승인을 했던 사업이라 그동안에는 교육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질의한 결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답이 왔고요.

저희도 내년에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온천치유센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스스파산업진흥원과 함께 거기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헬스스파산업진흥원 보유 장비를 활용한 건강 상태 측정이라든가 피부 타입 측정 그리고 온양온천수에 대한 제공 온천입욕지도, 저희가 각 거점별로 도고온천, 아산온천 거점별로 치유센터 같은 그런 거점별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개 정도의 목욕장을 갖고 있는 온양온천에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목욕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아산시민들이 온천도시로서의 온천치유센터를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는 쉬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천치유센터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천입욕지도라든가 아니면 온천욕에 대한 라이프케어 스타일 이런 거 그리고 전문가 제품에 대한 온천수를 이용한 화장품 시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초반에 2021년도에 이 센터, 온천뷰티센터를 하게 된 계기가 그 목적 아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온천뷰티센터를 했을 때는 처음에 1년 정도는 그렇게 온천에 관련한 뷰티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장으로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아서 교육하는 곳으로 변경되어서 문화라든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게 1년간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진 거죠?

1년이 아니라 2년이죠, 22년이랑 23년이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거는 지금 받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이 안 되니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하다가 안 되니 다시 또 4억 5천을 투자해서 시설을 장비를 구축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처음에는 뷰티체험센터로 해서 온천뷰티로 해서 마사지하고 이런 식으로 됐었던 거고요.

○김은아 위원 처음에 시설비는 얼마였습니까, 21년도 그 당시에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예.

○김은아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이 사업 처음은 2021년도가 아니라요, 온천뷰티체험센터는 한 2016년 경에 시작이 됐고 온천뷰티체험센터가 원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2019년서부터는 다시 기존에 직영형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때 아마 의원님들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너무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현장 점검을 나가셨는데 정말 그날 이용자도 거의 하루에 한 명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 조언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를 온천뷰티체험센터가 아니라 온천을 근간으로 하되 여러 가지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체험 공간으로 운영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가지고 2019년부터, 2018년에 공모를 했어요.

운영자를 바꿀, 민간에다가 운영을 대행을 시키고 공모를 해서 두 팀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점수를 더 많이 받은 지금의 사업자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2016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한 7~8억 정도, 돈이 국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요.

2019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받을 때는 사업비는 추가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16년에 7~8억 투입돼 가지고 리모델링이랑 시설이랑 공간 자체가 구축이 됐다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온천치유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다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16년, 18년, 19년도에도 1명 이용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할 때는 마사지사, 마사지를 위한 평상도 저도 그때 당시에 가봤던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은데 마사지라든가 뷰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온천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그 당시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 지금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계약 그분께 사업자에게는 해지통보를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업무협약 해지계약은 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업무 해지…….

○**김은아 위원** 해지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센터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그때 인수 받은 그대로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부분도 확인을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

다.

○**김은아 위원** 온천치유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획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하실 건지 방문객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1년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순신에 관한 주제나 테마가 많아요.

그 부분으로 관광진흥과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산시가 관광을 이순신으로 테마를 잡았을 때 근본적인 부분은 없고 서브적인 역할만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딱 관광이라는 게 역전에서 내려서 또 터미널에서 내려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렸을 때 이순신의 도시라는 그런 테마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채워나가야 서브적 역할도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역전에서 내려서 또 버스에서 내렸을 때 아산시가 이

순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관광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 부분 없이는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만 투입이 되는 거지 이게 관광으로 과연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실 때 근본적인 부분, 행정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야지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집행부들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전부 사전에 주요업무 계획부터 예산까지 전부 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중을 묻기 위함이에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 시간을, 바쁜 의원님들도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 집행부들도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서로가 많은 거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들도, 그래서 시간을 좀 간소하게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엇그제 강남을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을 다녀오면서 내려오니까 밤 한 10시 정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천안 버스터미널 주변을 보니까 우리 아산시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사실 연말 같은 분위기, 활발한 분위기 아산시는 사실 죽어있는 분위기.

저는 트리도 기왕이면 만들 거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더 이상, 매년 하는 만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일찍 트리를 만들어서 분위기 좀 띄워주고 역전 쪽이나 터미널 쪽에 밝은 기운을 아산시민들한테 연말 분위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천안시 터미널 앞에 구석구석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을 화려하게 야간등으로 전부 설치를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크리스마스 대회를 한다, 이렇게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 사업을 지금 터미널 부근 쪽에다가 짝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산시는 늘 야간경관사업에 치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누가 그거를 보완조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참 아쉬웠다는 거예요.

본 위원들은 지방을 다니던 어디를 벤치마킹을 다니던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잘 아니에요.

직업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눈이 쏠리는 걸 어떡해요.

우리 아산시하고 비교, 분석하는 걸 어떡합니까?

물론 관광진흥과 이번에 신설되면서 사실 많은 거 해 왔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달빛야행도 본 위원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달빛야행 정말 대성공했습니다.

그다음 온천대축제,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잘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순국제전, 어쩔 수 없이 날씨가 그랬지만 뭔가 재연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전문가들이 저한테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전문가들이 참 뜻밖이다, 전국에서 이런 순국제전은 최초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명 깊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참여했던 분들도 소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은 분명히 같이 따라붙는 게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살펴주십사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할 점은 과감히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좀 해 주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2024년 예산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최근에 했던 사업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4.28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게 다 끝나고 결과보고서는 비축해 놓고 이리이러한 것을 참 잘 뒀고 이리이러한 것은 부족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 이리이러한 예산은 조금 더 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관광진흥과가 만들어 지면서 물론 추경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과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 그렇게 새롭게 하는 사업 하면서 온천도시 지정 받고 산업박람회도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국제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서 많은 부족한 점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 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온천축제라든지 순국제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과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온천산업박람회 이번 달 11일 성과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순국제전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거

를 성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도 여기 와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공연이라든가 이거하고 조금 트렌드가 다르게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이런 게 필요해서 내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야간관광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채택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하고 계시지만 문화관광 쪽은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비전문가예요.

하지만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된다.

실과는 그래야 우리가 용역을 주던 어디에다 위탁을 주던 저희들이 전문가 수준에서 그분들을 위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희들도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서 많은 거를 여쭙보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7페이지인데요.

장항선 폐철도 활용 치유의 간이역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도비를 도 공모를 따가지고 오느냐고 우리 실과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용역도 저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지금 위치도, 주로 산책로 이렇게 해서 예시를 조성계획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과연 폐철도 활용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폐철도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군데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군산 폐철도 이용, 이제 거기서 시들해 졌어요.

관광객이 아마도, 저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많이 줄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두 번이나 갔으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요, 이제는 폐철도를 이용한 거는 좀 특색이 있어야 돼요.

저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호주로 저희가 연수를 갔는데 폐철도를 이용해서 호주 대표적인 세계적인 명소죠, 퍼핑빌리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폐철도 이용해서 한번 된

가 해 보자, 그런데 거기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 가장 오래된 증기기관차를 다시 재연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가 있었어요.

이건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함께 힘을 모아서 증기기관차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산책로를 따라서 가면서 곳곳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는 호주는 그래서 전세계적인 폐철도 관광지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혹시 프랑스 가셨을 때 폐철도 이용한 데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네, 오르세 미술관이요.

가 보셨죠, 저도 가봤는데.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개인적으로 가봤을 때 갔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거기는 폐철도를 이용해서 미술관으로 성공한 곳이에요.

저는요, 폐철도를 이용해서 신창역사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에서 놀자라고 했는데 거기 참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창면 주민들이 그거를 대폭 함께 응원을 했어요.

청소도 다 우리가 했어요, 거기에 몇 십년 된 참고가.

그래서 거기를 뭘로 만들었냐,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때 활용했던 발표했던 미술관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미술관으로 만든 거예요, 폐철도를.

그런데 저는 사실 폐철도를 선장만 국한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신창

서부터 학생역까지 쪽 한번 용역을 한번 쫓았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는 뒤늦게 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아깝다, 신창역 가서 여기서부터 같이 넣었으면 참 좋았을 걸,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옛날 90년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두 번도 안 찾아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 과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천치유센터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뷰티센터를 온천치유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있을 때 온천뷰티센터를 역사 하부공간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부공간이요, 접근성이 용이할 것 같죠?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안내센터가 더 커지죠?

밑으로 들어가서 하부공간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치유센터를 들어간다?

누가 거기에다 호객행위 할 것도 아니고, 예?

아니, 물론 여기에서 피부보습 측정도 하고 pH 측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측

정해 주고 그럼 참 좋죠.

그런데 이런 거는 뭐냐, 온천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온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관광호텔 온천 안이나 아니면 도고온천 안이나 아산온천도고 안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이 결과가 어떤가 하기 전에 측정하고 들어가서 누가 하부공간에 들어가서 이거를 측정을 하고 온천을 간담니까?

전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고온천에, 도고온천이랑 선장 쪽에 저희가 추억의 간이역길 조성사업을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고온천은 4km 인근 근처에 세계꽃식물원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코미디홀, 용기체험관 이렇게 있어서 연간 방문객이 1년에 한 50만 명 가까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막상 온천을 하고 한 곳에 가고 그런데 길을 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역부터 학성역까지 2.5km에 이르는 공간을 선장역에서 1.2km는 레일을 까는 옛날의 간이역길, 그 이후로는 철도가 없는 예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산책길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과 협업이 없으면 이걸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역에 있는 선장면에 있는 분들, 또 도고에 있는 분들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억의 간이역길 조성된다고 해서 그걸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작은 콘서트라든지 농민들이 와서 팔 수 있는 농산물 공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하고자 하고요.

저희도 이걸 위해서 전라도 쪽에 있는 화본역이라든가 군산에 있는 역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 다녀왔고 여기 말씀하신 군산, 경의선 철도역 이런 데 많은 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길 좀 더 벤치마킹을 더 해서 부족함이 없는 모처럼 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북권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그쪽에 필요한 면이 있어서 이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센터는 지금 도고온천하고 아산온천은 온천 내에 거점별로 해서 치유센터를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작 한 곳에서 하는 건 양쪽에서 파라다이스하고 스파비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양온천 시내에는 13개 목욕탕이 있는데 시민들이 방문객들이 실제로 오긴 하지만 리조트를 이용한 분들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 목욕을 위해서 하는 분들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검사도 해 주고 건강상태 입욕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온양 시내에는 정작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에 있던 뷰티체험센터 마사지라든가 이거하고 좀 다르게 온천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걸 검증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온천수를 이용한 화장품도 판매도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해 주고 이런 걸 홍보차원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 어렵다고는, 예전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안내센터도 12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내센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고요.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온천도시 지정이 되고 산업박람회 하면서 저희 시의 방향이 목욕에서 치유 치료로 가는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 전에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치유하고 체험하고 이런 시민들 방문객들이 실질적으로 온천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온천에 대한 거를 효능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에 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어쨌든 결정은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계획을 들어보면 너무나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지쳐요.

사실 폐철도나 이런 데 보면 협업해서 농산물을 판다고 하는데 저희가 관광가서 농산물 사옵니까?

안 사와요.

새로운 접근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윤원준 의원은 계속, 지금 공모전에 공모할 계획은 있습니까?

나라에서 하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천철호 위원 언제 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앞으로 계속, 지금 언제 딱 하겠다는 아닌데 24년도에 그 공모전에,

○천철호 위원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가 야간경관에 대한 것을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여수라든가 통영이런데 많이 벤치마킹을,

○천철호 위원 갔다는 오셨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고요.

그냥 대답만 하시는 거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

○천철호 위원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뭐가 세워서,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천철호 위원 저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또 하나 충효애 사업 지금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거의 다 이순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충효애 사업 돈 따오는 거에서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공모사업 자



체가 충효애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지금 분명히 순국제전도 올해는 했지만 내년엔 2억 8천이면 올해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정말 7억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집행내역서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24년 지난 25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 있는 이 사업들 정말 내년엔 제대로 안 보여주면 저희 의원들이 안 세워주면 이 사업 못 해요.

지금 다 돈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하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한들물빛아파트 축제보다 우리가 주관하는 축제가 더 재미가 없어, 사람이 더 안 모여.

왜? 저희는 그냥 돈이 세워졌으니까 돈에 맞춰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서 즐기고 먹거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가 돼야 만이 그게 되는 건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결과보고서가 있고 내년 예산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아요, 예술과나 여기나 결과보고서 갖고 와 가지고 ‘올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년엔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럼 세워주세요.

저희 의원님들 다 다녔잖아요.

거기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 거를, 그러면 그게 되잖아.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년엔 예산에 세우면 예산 세운 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다고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충효애 사업은 정해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순국제전을 하면서 정해진 콘텐츠에 의거해서 했던 사업인데 부족한 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천철호 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거 다 들었고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천철호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써야 돼, 돈 다 써야 돼,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순국제전 말씀…….

○천철호 위원 순국제전 말고 다른 거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다른 충효애 사업,

○천철호 위원 예,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천철호 위원 4.28 때 충효애 사업에 있는 거 갖다 썼죠?

쓸 수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4.28 때 쓴 게 아니라 이순신,

○**천철호 위원** 충효애 사업 거 갖다 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축제랑 충효애 사업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 갖다 썼는데 그냥 돈에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순신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름만 있어요, 허공에.

저희 마음속에 이순신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어차피 하실 거니까 정말 계획을,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4.28 사업을 할 때 예산 갖다,

○**천철호 위원** 4.28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쓴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4.28 때 저희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기도, 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4.28 행사가 13억 5천인데 18억 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천철호 위원** 예, 이것저것 다합해서 20억이 넘으니까 4.28을 그렇게 키우려

고 하고 거고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실했으면 좋겠어.

4.28 행사인데 올해 이렇게 케파가 커져서 이렇게 되니까 20억이 넘으니까 20억 넘게 세워달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기서 돈을 다 끌어다 쓰고 보니까 그게 돼.

그냥 올리는 거야.

저는 행정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할 때 정말 잘 계획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모든 행사나 공연은 반반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노력해서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속 불만만 쌓이는 그런 행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신규사업도 있고 보완 발전 사업도 있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업도 있어요.

뭐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이순신, 온천, 뭐 하나 쉽지는 않은데요.

실과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그동안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거의 결과치를 잡아서 왔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도래된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한 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아산시 발전이 되는 관광의 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6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아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안에 아산시를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충청남도에서는 23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월부터 진행이 되고 지금 시기로 보면 내년에 1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3분의 1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전략계획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조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략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이 만들어 지기 전에 우리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켜서 그 이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담는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충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이 3분의 1 정도 된 상황에서 이제서 우리가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부분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시군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면 저희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반영을 하는 식으로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럼 지금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은 어느 정도 좀 이뤄졌나요, 내용 자체는?

아산시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고 물론 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실무적인 협의사항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2024년도에 그래서 배방 탕정 시굴조사 같

은 경우에는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산성 종합학술조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시굴조사랑 학술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것이 도의 사업비를 받는 부분을 진행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산의 산성 종합학술조사 용역 준공이 12월에 끝나는데 전략계획도 12월에 같이 끝나서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이 부분이 진행된 거는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 사항은 맞고요.

도에서 저희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같이 포괄적으로 도에서 같이 포함을 시키기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김미성 위원** 실무적으로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40건, 저희 지역이 40건입니다.

그래서 아산 지역이 40건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도에 접목시킬 것인지 그동안 실무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업무보고 안에 넣어졌어야 되지 않나, 그 자료를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사업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참고자료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계획 수립 사업계획안 있으시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거 하나 자료를 따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71페이지인데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사실 이미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때 너무 많이 다뤄서 더 크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부지문제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도 그렇고 윤보선 대통령 건립사업도 그렇고 역사박물관 사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안 된다는 얘기만 수년 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도 땅 부지를 토지매입을 못해서 그게 오랫동안 의회에 보고가 됐었던 사안인데 더 나아가서 지금 페이지 78페이지도 보면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도 다시 부적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

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금년도에 3차 심사까지 갔는데요.

3차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고 기념관 운영을 위한 실현가능성 조직 운영 제시가 미흡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는 기증협약을 제시하였으나 기증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관건은 다른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추가 보완용역을 통해서 가능한데 보완이 가능한데 지금 기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협약은 했으나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기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은 걸림돌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대통령 자제분을 다음 주에 만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증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저희가 보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게 참 시의회에서 이거 제가 아마도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지적이 왔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들어오면서도 항상 단골 질문이 기증 어떻게 할 거냐인데,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지난 번에도, 금년도에 이번에 사전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다시 또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심사위원들께서는 이거는 순수한 기증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통과를 못한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기증 문제를 제기가 됐지만 기증협약으로 그걸 실타래를 풀어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실타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법을 다시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81페이지 아산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늘 항상 의회에서 단골 주제로 지적을 받는 내용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물자료를 보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내용들이 간단히 말하면 80쪽에 아산 역사박물관 기본방향이 물과 역사와 더불어 아산사람들이 만들어 온 발자취, 미래 도시 이런 건데 그런 것들과 지금 이 유물자료는 컨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현재 아산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중앙박물관에도 가 있고 국립공주박물관에도 가 있고 지금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풍산 홍씨라든가 남양 홍씨 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기탁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그분들께서 기증을 하겠다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물도 있고요.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귀중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타 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 대역을 해 온다거나 아니면 기탁된 부분들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한계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산 역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갔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들어갔습니다.

○**김미성 위원** 언제 끝납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지금 1년 10개월로 잡았는데요.

내년 9월에서 10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내년 9월에서 10월이요?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7월에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하는데…….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지금 추후에 진행상황을 봐서 사전평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가는 타당성 평가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기증품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7월에 진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참 우려가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용역 진행 상황을 봐서 시일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중간보고회 언제 합니

까, 이거?

타당성 조사?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중간보고회 일정은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곧 착수보고회를 이번 달에 착수보고회 할 계획,

○**김미성 위원** 착수보고회 합니까?

착수보고회 자료 지금 미리 준비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아직은 지금,

○**김미성 위원**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준비가 덜 됐습니다, 예.

○**김미성 위원** 10월에 용역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부족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사실 연말이라서 저희가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김미성 위원** 그럼 아직 추진된 게 아니네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직 추진된 게 아니네요, 타당성 조사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예, 저도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참고자료 8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 보고가 365페이

지예요.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곳에 무엇을 담을 건지에 대한 계획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에 있고 아산시가 나타나는 소재가 곡교천, 온천, 이순신에 대한 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역사의 특수성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 지역이 시대별로 보면 삼국시대하고 고구려, 조선, 근대, 현대로 나뉘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려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저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효진 위원** 다른 지역은 없어요, 그런 불교 문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불교 문화, 유물이라든가 문화재가 저희가 고려시대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보급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하고요.

**○박효진 위원** 국보급이 있으면 그거를 역사박물관에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으시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영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행궁하고 유교하고 인물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대는 온천, 현대는 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금 공개예정 유물, 구입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그거는 매입된 겁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매입이 된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를 나타내는 소재 곡교천, 온천, 이순신, 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보이는데 난중일기도 원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늘상 얘기를 아까 김미성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다 무엇을 담을 건지 그리고 온양 민속박물관과의 차별점은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는 그래서 역사박물관 할 때 민속 부분은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무쪼록 온양역사박물관, 과연 이게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더 촘촘히 세울 건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물, 담을 거리, 역사에 담을 거리를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물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진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안에다가 전시할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증하고 매입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 2023년 6월에서 7월까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몇 번 회의가 됐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건립자문위원회, 저희가 구성하기 바로 전에 그분들과 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구성하기 전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전에 회의를 한번 했고요.

○박효진 위원 지금 총 몇 명이고 구성된 인원이 그때 회의한 자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위원회는 12명입니다.

○박효진 위원 12명인데 구성되기 전에는 회의를 몇 명에서 하셨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7명 정도 참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 부분은 다양하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 부분, 역사 박물관은 얘기를 하면 대체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고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물 부분이라든가,

○박효진 위원 무엇을 담아야 되냐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셨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지역 특색을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로 나온 얘기는 온천하고 산업은 항상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역사 부분도 기본은 깔고

가야 된다는 말씀들 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에 우리 아산시 기관 표창을 사회복지과에서 몇 개나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6개 분야 받았습니니다.

팀별로 하나 내지 두 개 이상 받았습니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런 공모에 참여하는 기여도나 이렇게 우수한 기관 표창이나 우수 사례금, 우수 상금 이런 거를 모범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에 그 말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집행부나 각 부서에서도 공모나 국비나 도비를 잘 매칭해 오는



사업을 전 많이 가져왔으면 그걸 솔선 수범 하고 적극 행정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산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분야별로 되게 탄탄하게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 많이 인구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획기적이고 저출생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노인, 장애 이런 복지 쪽으로 좀 더 많이 획기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87페이지 광한일 의병장 추모제가 제가 알기로는 광한일 의병제랑 진수린 독립투사 추모제가 민간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주최 하에, 광한일 의병제를 이제 시에서 주관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게 민간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요.

송악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쨌든 보훈 행정을 더 높이 사고, 시 단위로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한번 했고 내년도에 이어서 또

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진수린 추모제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아, 진수린 추모제 똑같습니다.

그것도 염치읍에서 주관을 하다가 시 단위로 행사를 격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진수린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우체국택배사업단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 2023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이거는 평가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매출도 한 3300만 원 나왔는데 이거는 연말 종료하면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워크숍을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평가는 안 했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건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어려운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활동 하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활발하게 하고 있고 희

망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거는 우체국에 있는 택배를 자활센터에서 협약을 통해서 택배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활사업에서.

똑같은 택배하는 활동하고 같은 방향으로,

○김미성 위원 일반 우체국 택배와 같은 개념이고 우체국이랑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김미성 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읍·면·동 찾아보는 보건복지팀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2차 교육을 보면 청년아지트에 들어가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공유가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사업이,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인데 어쨌든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고독사나 전체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거기하고 일자리경제과 협업해서 이걸 진행했던 겁니다.

어쨌든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나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과 함께 해서 사회경제과, 노동청 같이해서 역량강화를 같이 워크숍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이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

은 없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공유해서 다른 업무하고 연계하려고 그때 회의를 했던 겁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는 말처럼 청년의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지 어떤 복지차원에 있어서는 우리 실과가 좀 다시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AI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이거는 올 12월까지만 진행을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게 12월까지 하는 게, 공동모금회로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건 충청남도에서 내년도 지속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김미성 위원 아, 도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진단평가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이거는 어떤 결과값을 갖고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 평가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차, 3차까지 평가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31명까지인데 내년도에 10명을 더 증원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예,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우리 부서마다 사실 기관단체 표창 받기가 사실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부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이번에 사회복지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우리 상임위에서 큰 힘찬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고맙습니다.

○**이기에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팀장님, 직원들, 국장님까지 어쨌든 축복이 12월에 우리 사회복지과로 전부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번에 행복키움 한번 이렇게 쪽, 일단 97페이지인데요.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 활성화 추진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행복키움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변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 행복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각 17개 읍·면·동에서 크게 편차 없이 회원들 확보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 봐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못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점에서는 행복키움 추진단이 17개 읍·면·동에서 뭔가 새롭게 전진하는 2024년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혹시 이쯤에서 행복키움추진단을 한번 뒤돌아본다면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쨌든 행복키움이 읍·면·동에서 일선에서 같이 해 주고 있고 올해도 한 202개 사업에 민간 기부금에 8억 이상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공영역에서 못하는 민간영역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키움 부분 위원님 말씀 좋게해 주신 부분들도 보완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같이 협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4개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조금 눈에 띄게 너무 잘하는 데가 있는 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는 눈에 띄게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회원 확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 회원들이 또 널리 옆에서 MOU를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면동장님이나 아니면 총무팀장님 여러 팀장님들도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MOU를 맺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회원들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한 8억 원 정도를 기부금을 모아서 이웃에게 널리 알린다는 자체는 사실은 민간단체가 이렇게 하기에는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혹시 지금 행복키움추진단 팀에서 고독사 예방까지 지금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고독사 예방도 함께 추진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기에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여론조사나 고독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몇 분 정도나 우리 아산시에 있는지 각 읍·면·동에 몇 분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뭐하고 관계되는 역할을 우리 키움단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직원은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행복키움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러면 팀장 빼고 3명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신규업무가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새로운, 중앙부처에서 생기기 때문에 인사부서에다가 인력 부분을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인력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우리 과장님 인력보충해 달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이기에 위원 그냥 말씀만 해서는 아마 절대 안 줄 걸요?

우리 국장님이 힘을 보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고독사 예산이 내려왔어요,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사업들이 아마도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인력 보장은 저는 필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국, 과장님께서 힘을 보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2018년도에는 28%에서 올해 4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 행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우리 과장님 선물 달라고 하세요, 집행부한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선물은 당연히 모든 과목 전부 다 해 가지고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선물은 당연히 줘야죠, 그렇지요?

예, 선물달라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372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14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 개관 했잖아요,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언제 이관이 오나요, 여성복지과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올 연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올 연말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12월, 지

금,

○김은아 위원 지금 12월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아직 남아서 사실은 본관 건물에 대해서도 올해 3월부터 이관해 주겠다고는 계속 했는데 BF인증이 그동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돼서 12월 말 안에는 인증이 끝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때 넘어오고 별관은 내년도 2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BF인증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저번에 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BF인증을 그쪽에서 장애물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차례 검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인증만 되면 모든 건 다 이관이 되나요, 우리 여성복지과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3월에 시장님께 결재 보고를 같이 들어갔었어요,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본관에 있는 카페를 제외한 거 하고요.

별관에 1층에 체험공방, 여기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본관에 나머지 건물들하고 별관에 있는 2층에 기록관 그 쪽은 저희가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현재는 얘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김은아 위원** 왜 이렇게 쪼개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럴 수밖에 없는 것어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익시설이거든요.

수익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마을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김은아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마을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고 그러면 다른 거는 여성복지과고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체 어느 과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한 과에서 다 일괄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해 봐 주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온양원도심에도 센터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은아 위원** 거기 가족센터가 또 조성이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또 그 소관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가족센터가, 예, 들어가는 거죠.

○**김은아 위원**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은아 위원** 소관은 여성복지과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관이 계속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어떤, 그,

○**김은아 위원**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 건물 자체가 저희만 들어가는 거는…….

○**김은아 위원** 예, 알아요, 다 들어가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닌 것 같은데, 예.

○**김은아 위원** 그 건물 자체도 다 그럼 부서가 쪼개지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걸로만 지금 일단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도시개발과랑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여성커뮤니티센터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그렇죠.

○**김은아 위원** 이거를 한 부서에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본 위원도 여성커뮤니티센터 건 관련해서 여쭙보고 싶은데요.

참고자료 114페이지 보면 운영 프로그램이 2개월 정도 프로그램인데 인원이 398명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왜 그러냐면 오픈 클래스라는 중간에 끼어 있는 프로그램 250명 정도 지금 예정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짧은 한데 저희가 좀 더 힘을 쥐서 하는 사업은 홍보하고 일단 이런 시설이 시민들한테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 CEO특강도 운영을 했고 오픈 클래스 기념으로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토요일은 5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한 프로그램당 50명 정도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김미성 위원** 오픈행사 같은 거네요, 한 마디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시설을 알리는,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한시반에.

○**김미성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신청을 안 받고요.

지금 홍보를 하고 선착순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홍보는 좀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홍보는 열심히

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까봐 걱정이어서 대기실도 준비를 하고 거기도 혹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까봐 곳곳에 1층에 대기실을 만들고 비어있는 공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게 클래스면은, 다 클래스인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미성 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도 딱 인원을 잘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선착순 받는 게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5개를 다 체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5개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내가 A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초콜렛 만드는 프로그램 있으면 거기도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오픈되면서 하는 그런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하고 결과값으로 같이 이 부분을 논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인지 그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게

2024년도 업무추진 하는 건데 그게 없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373쪽에 보시면요, 주요 프로그램 해서 취·창업 관련 교육, 372쪽에,

○**김미성 위원** 예, 예.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한 쪽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동아리 활동,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3개 영역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번에 우리 시의회에도 갔지만 관장님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센터장님.

○**김미성 위원** 센터장님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미성 위원** 센터장님이 의욕은 많으신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히스토리나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도심재생센터가 따로 있는 만큼 그분들이 예전부터 사업을 일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성매매 집결지였던 공간을 도시재생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도 기존에 활동가로 하셨던 분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간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열심히 진행을, 특히 내년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더 잘 아

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115쪽에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출생에 관련된 아산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쭙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계획을 세밀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인구 관련 용역을 그때 당시에 김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 1억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아요.

○**김미성 위원** 예산까지 잘랐습니까? 삭제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는 제출은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사실은 굳이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아산시가 저출생을 잘한다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착시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만의 특수한 시책이 없는데 이렇게 저출생 문제와 별도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개발사업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때문인 거고 근데 우리



는 어떻게 저출생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유입된, 도시개발로 인해서 유입된 인구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교한 부분들이 아산시만의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추경 때라든지 해서 제가 의회 회의록에 일부러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과와 좀 더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이걸 정말 아산시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도 동의하셨으니까 그것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김미성 위원 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추경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본 위원도 여성커뮤니티센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보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1층에 열린카페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열린카페는 아직 오픈을 못했습니다.

○이기에 위원 왜 오픈을 못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열림카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수익시설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이 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침체된 원도심활성화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운영자를 도시개발과에서 선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거를 도시개발과한테만 맡기시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한테만 맡기시면 열림카페 못 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개관한 지가 언제인데 열림카페를 그렇게 하고서 1층의 얼굴이에요.

1층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갔는데 개관했을 때 가니까 너무 밍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뭔가 1층에 카페를 집중적으로 추진 하셔도 제가 보기에 지금 늦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늦가을, 겨울서부터는 카페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무한한 요소가 다양하거든요.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한테만 맡겨놓고 카페를 지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과연 할 것인가 이거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도시재생운영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카페도 전부 다 제가 봤을 적에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전부 다 완수했고 그 친구들이 5~6년 동안 계속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해왔어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러시느냐고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여성가족  
과한테 전부 다 이관을 하라고 하세요,  
건물 자체를.

그래서 우리 쪽에서 누구를 관리를  
하던 위탁업소에서 관리를 하던 어떻게  
하던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밑게 언제까지 1층을 그냥 방관하다  
시피 내버려둘 거냐고요.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도 이것을  
호대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번에  
센터장님도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해요.

주관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내가 보기엔 들을 양반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도시재생과는 지금 도시재생  
과 나름대로 거기서 또 여러 가지로 줄  
다리기를 하고 있고.

콩만한 건물을 갖고 이리 쪼개고 저  
리 쪼개고 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나서셔야 될 것 같  
아요.

어느 한 곳으로 전부 다 김은아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곳으로 전부  
이관을 시키든 아니면 1층에 열린카페  
를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하시든지 지  
금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분들이 어쨌든 원데이 클래스  
도 하고 하루에 그분들이 모여서 토요  
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클래  
스를 대대적으로 할 텐데 홍보 차원에  
서 밑에 카페가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  
고 있다?

가오픈이라도 하셔야죠.

이거는 아산시의 손실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추진을 못하는 이 과

정, 실과마다 핑퐁하고 서로, 이거는 옳  
은 행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올해 가기 전까지 열린카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만  
약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계속 못한  
다 그러시면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한테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배석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  
다.

○이기에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곤란하시면 그렇게 하셔서 하  
나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라도  
리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거기가서 분명히 이런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천철호 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나.

그런데 조금 아까 이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핑퐁해서 안  
되면 저희한테 의지하세요.

저희가 힘을 실어드릴 거니까, 그거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  
겠고 조금 아까 아이 낳고 함께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이걸 보면 우리가 착시  
현상에 우리가 속아선 안 되겠다.

아산시가 지금 인구가 느는 것은 탕정하고 배방에 천안에 있는 인구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산시가 마치 잘해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 버리면 저희가 더 큰 고민도 안 할 것이고 노력도 안 할 것이예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천철호 위원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승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팀장님들하고 나름대로 토론도 하셔가지고 착시현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장님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37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안전망 강화 건이 있는데 137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인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현저하게 낮아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속 이 금액은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발생을 하면 그 아동들을 심리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거나 하는 금액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쓰기 이전에 1차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료비를 먼저 사용한 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조금 잔액이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반 정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속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 소요된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그래서 2021년도부터 보면 계속해서 집행액이 조금 저조해서 이 부분은 집행액을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속 예, 맞습니다.

21년도에 5000만 원 세워서 600만 원 사용하고 22년도에 3000만 원 세워서 200만 원 사용하고 올해도 반액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계속 금액을 줄이기는 했으나 이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유보액을 두고서 나중에 급하게 사용할 일 있을 때 사용을 하려고 남겨놓은 금액인데요.

내년에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는 이 건 얼마나 잡으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내년도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미성 위원 똑같이 1000만 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계획과는 조금 별개고 자료에는 없지만 그러나 내년 업무에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내년 초에 보육수급계획 세우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보육수급계획 세웁니다.

○김미성 위원 보육수급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세대 수별로 어느 정도 어린이 집에 대한 티오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조금은 특별한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보면 어린이 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

해서는 우리가 그런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을 타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민원과 현장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도 올해 3공구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입주할 하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 집에 그 분야에 있는 어린이 집에 대기자가 엄청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수급계획에는 현재로서는 300세대당 가정 어린이 집이 1개씩 들어가게 되어 있으나 지금 어린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수급계획에는 분석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제기된 만큼 이걸 반영을 해서 수급계획에도 잘 녹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과장님 경로당 신 증축 건에 대해서 이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혹시 아파트, 옛날 아파트에 지금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서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쫓겨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기에 위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

○이기에 위원 예, 저희 지역구만 몇 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아.

○이기에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었 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결을 했는데 지금 또 그런 경우가 또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공동주택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건물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경로당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매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유 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아산시에서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이기에 위원 아무튼 이따가 업무보고하시러 오실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이기에 위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칭찬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도비, 경로당 별로 도비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역에 편중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각 시의원님들이 각 자기 지역구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통으로 해 가지고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번에 저희 경로시설팀장님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팀원들도 노력을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관련해서 국비 공공 리모델링 사업으로 따온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너무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에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저희 청취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하시면서 특화 음식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히 특화 음식에 대해서 크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요.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공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잠이 안 왔어요.

늘 본 위원은 아산시의 특화 음식 발굴을 위해서 뭔가 주제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갈망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숙제를 퉁 던지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나 깨나 먹으면서도 그 생

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어제 꿈도 꿴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했던 부분이었고 우리 아산시의 대표 음식, 특화 음식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열심히 또 했고 온궁도 개발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온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옆에서 여러 가지 같이 참여를 해서 먹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분명히 ‘이 음식 어렵습니다.’ 했는데 아산시에서 밀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특색을 갖고 과장님께서 아산시의 특색 있는 음식 발굴을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2016년도에 개발된 온궁탕 같은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면 재료가 돼지 족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있고 재료부터,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산을 상징하면서 관광객들이 쉽게 구매하고 또 이렇게 확산도 가능한 손쉬운 제품으로 발굴을 하고자 과자나 빵, 이런 제과류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게 본예산에도 저희가 이거를 올렸습시다만, 공모전 상금하고 공모전

하고 해서 32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통과가 되면 일단 내년 2월에는 전국 모집공고를 할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서 숨은 주부나 고수가 있을 테고 아산을 상징하고 확산 가능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공모작에 선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여러 전문가나 일반인들이나 여러 분들을 많이 모시고 품평회단을 구성해서 이 제품을 보완하는 품평회를 갖고자 합니다.

적정한 가격인지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지 타 지자체에는 없는 우리 아산만을 상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많이 보완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저희가 작품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제품에 맞는 스토리텔링도 공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제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포장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호하고 소장하고 싶은 이런 포장지를 개발해서 이렇게 특화 음식을 잘 개발하고 내년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SNS 맛객단을 대폭적으로 20명으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고 SNS 홍보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은행나무 거리나 신정호 카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아산에서 만든 특화 음식을 홍보해서 잘 개발하도록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기에 위원 과장님 본 위원한테 얘기했을 때랑 별다른 바는 없네요.

뭔가 조금 더 생각을 더 하셨나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사실 제과류 빵을 빵 종류, 과자 이거를 한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저도 어렵다고,

○이기에 위원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에 위원 그리고 이게 비록 응모를 해서 여러 가지 품평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여러 가지 첨가를 같이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둔다고 하더라도 제과류는요, 금방 오늘 나온 거하고 2~3일 나온 거하고 일주일 나오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재고 처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경주가면 경주빵에 대대로 몇 대손손 내려와 가지고 이 빵을 위해서 특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사와 같이 함께 전통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줄서서 이 빵을 사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한테는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매장이예요, 이게.

어디다 위탁을 해서 이 빵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과를.

그러면 과연 이거를 선정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판로를 과연 어디에서 판로를 할 건가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요, 개인 제과점

빵이 천안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적어요.

이제 빵의 도시, 천안은 빵의 도시가 돼 버렸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특화적인 제과빵집들이 유명한 SNS를 타고 다니는 빵들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우리 아산시는 몇 개 단체, 몇 개 메이커가 주류를 이뤄서 각 읍·면·동마다 거의 되어 있고 개인 제과점 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판로를 체인점에다 갖다가 이 빵을 팔아주십사 하고 갖다 놓을 거냐 이 소리예요.

아니면 관광지에다 갖다가 이걸 놓을 거냐는 거죠.

**○위생과장 안금선** 일단은 공모작에 선정된 작품이 있으면 우리가 전국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근 천안이든 공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작에 대한 것은 소유권의 저작권은 애초에 아산시에 귀속되는 것을 명시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레시피를 품평회를 통해서 다시 개발한 다음에 지역 업체를 통해서 생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산시 제과협회랑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제과협회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에 위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기에 위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에 위원** 저는 아산시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없다, 아산시가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산시는 그냥 어디가서 모양은 따 가지고 와요.

우리도 이걸 한번 해 볼까?

그런데 그냥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지껏 그래 왔어요.

우리 온천 여러 가지 제품 종류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고 연구비를 주고 했는데 그것도 화장품도 그냥 거의 당근마켓에 올라와요.

누가 사은품으로 주면 당근마켓에 반값으로 올라와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마케팅서부터 제품이 나오기까지 마케팅까지 이걸 정말 이걸 금방 당장에 시장님께서 ‘우리는 왜 이거 아산시에 먹거리가 없나? 먹거리를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게.’

금방 이게 똑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안금선** 예, 맞습니다.

**○이기에 위원** 먹거리는, 왜 아산시는 우리 아산시가 먹거리가 없는 줄 아세요?

아산시 먹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이 지금 재생도시 하고 있는 온



천천 개발하고 있는 거기 옛날로 따지면요, 된장골목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뭘 줄 아세요?

예산보다 먼저 저희가 국밥골목이에요, 거기가, 원래가.

국밥골목이 쪽 들어가면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도 그거를 도시가 개발되면서 싹 없애 버리고 그걸 다시금 만들어 내자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국밥골목이에요.

우리 소머리국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산시의 역사를 좀 훑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옛날에 뭘 시민들이 주로 많이 먹었는지 어떠한 막걸리를 아산시 시민들이 힘들 때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착안해 내셔서 먹거리도 개발하고 뭔가 ‘아, 그래, 맞아. 내가 아산시에서 옛날에 이거 먹고서 자랐지.’ 이러한 추억이 담긴 먹거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저는 제과류를 지금 이걸 개발을 한다?

제과점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사실 업무보고, 사전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빵은 다른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차라리 술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 보면 어떨까.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신창막걸리도 있고 음봉막걸리도 있고 외암마을에는 연엽주가 있고 그리고 도고에도 도수가 상당히 높은 특이한 막걸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조장이 젊은 사람들 MZ를 대상으로 해서 양조장, 특히 시골에 양조장을 가거나 그 양조장이 힙하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힙하다라는 어떤 트렌드로 계속해서 양조장을 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양조장을 키우는 사업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민은 안 해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 안금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김미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를 다녀왔었습니다.

강화도를 다녀왔는데 강화도가 참 특색있게 문화재서부터 여러 가지가 너무나 눈에 싹싹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홍보도 잘하고 있고 강화도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강화도로 많이 몰

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화동 자연마을을 가니까 막걸리 집을 체험활동도 하고 막걸리를 아주 완전히 오픈시켜 봤는데 향아리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자기가 체험해서 막걸리도 체험해서 갖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막걸리 공장을 오픈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창에 막걸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실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술, 막걸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쪽이라도 한번 우리 아산시에 가장 잘하고 있었던 트렌디한 거를 골라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해 봐요.

그런데 그중에서 뭐가, 저는 술을 약간 못 먹는 사람인데 가장 저는 아산시에서 나오는 술 중에서 가장 매력있던 술이 뭐냐면 도고에서 나오는 짚동가리술이에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명절날 되면 도고에서 몇몇 집들은 짚동가리술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짚동가리술을 모 국장님 계셨을 때 그거를 조금 아산시에서 활성화 시켰었어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하나로 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도 했었고 판매도 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못 만들게 한 것 같아요, 법이 그랬는지 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짚동가리술이 엄청 깨끗하고 먹고 나서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나오는 외암도 연엽주 같은 경우에도 시음회도 하고 뺏도 하긴 하지만 그 밑의 단계로 짚동가리술을 판매를 가격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그 밑의 단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꽤 괜찮은 술이라고 지금도 도고에서는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금만 관심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우리 아산시에 전래적으로 내려왔던 여러 가지 음식들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좋은 아이템들 있으면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안금선** 예.

○**이기에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위생과가 하는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위생과장 안금선** 저희 위생과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음식점 지도점검, 단속,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이거 음식 개발하는 거 위생과 업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먹거리를 어느 과에서 하나 과에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없어.

사실 위생과는 뭐냐면요, ‘음식점에서 아산시 이런 음식합니다. 청결합니다. 믿고 먹어주세요.’

그런 음식 이렇게 맛객단해서 그런 홍보는 가능하겠지만 아니, 식당을 청결하고 깨끗한 지 검사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음식을 만든대요.

말이 안 되거든.

아산시에서 정말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고 싶으면 한 과에서 이거는 담당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헛갈려요, 어느 과인지.

이거는 위생과 업무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과장님이 아닌 건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먹거리 정책과나 이렇게 해 봐서 정말 거기에서 해야지, 본연의 임무를 해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장 안타까워, 저도 어느 과에 이거를 부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도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지만 아산시가 음식이 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랑할 만한 음식도 없어요.

하나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저희가 못 터트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위생과에서 이걸 접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을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는 국장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과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지금까지 못 해 왔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과치도 안 보여주고서 자꾸 사업을 이어간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다음부터 하실 때는 결과치 좀 보여주시고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작성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듣다 보니까 실과가 8개나 있잖아요, 이 국에는.

8개가 있는데 잘한 부서에는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조금 사업이 더디게 가는 부서들은 있어요.

그런 부서들은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각 실과가 조금 어디는 너무 잘하는데 어디는 너무 떨어져 있는 이렇게 한 국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다 치열업 해서 다들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안정근** 이어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안정근** 이사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 업무보고 계속)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에 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예, 예.

○ **이기에 위원** 교통시설분야에서 CS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업무역량 및 친절도를 향상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산시민들이 요즘에 평가하는 기사님들, 택시기사까지 전부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은 아니더라도.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예, 예.

○ **이기에 위원** 너무 불친절한 게 요즘에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듣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열심히 역량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교통시설 분야에서는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맞습니다.

○ **이기에 위원** 아산시민들께 발이 돼서 움직이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친절은 같이 함께 따라와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친절도에서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저희 교통시설팀이 버스를 포함해서 다른 데 종사하는 분들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CS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외부 고객들이 저희한테 칭찬글, 자랑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98점, 99점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향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이 서로 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친절한 언행이나 행동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세한 그런 거 마저도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한 달에 쉬는 날을 하루씩 항상 잡아가지고 월별로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면 직원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는, 교육만 받아 가지고 해소 되는 건 아니고 종사하는 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장교육이건 뭐가 됐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더 교육을 촘촘히 바꿔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친절 교육에 매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가능하시다면 이사장님께서 종사자들에게 힘이 돼 주게 친절도 왕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번씩 뽑아가시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위상을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더욱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자원처리장 수입이 스팀 수급처가 한 6억 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생활자원처리장이 국일제지 문제로 15억 원이 저희가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6억 원 감소는 다른 어떤 수입이 증가가 되는 게 총체적으로 따

져보니까 6억 원이 감소가 된 건데 스팀 판매 자체만으로는,

○이기에 위원 15억.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15억이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맞아요, 여기 15억이라고 돼 있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그래서 다른 게 커버를 하는 바람에 6억인데 내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하향해서 지금 잡았거든요.

올해 목표가 181억이거든요, 183억이거든요, 저희가 목표량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다 보면 올해는 근근히 목표량은 채울 수 있지 않나, 안 되면 한 181억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 15억이 감소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 수입액이 근 200억은 가까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그럼 혹시 스팀 판매를 다른 곳에 혹시 판매할 생각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창제지라고 있는데 국일제지로 들어가는 라인을 같이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신창제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스팀라인을 매설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매설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스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감가상각을 해 줄 그럴 계산으로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걸 매설해서 관을 연결해 놓으면 저희가 스팀을 내년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저번에도 한번 사업 얘기를 하시면서 스팀 수급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셔서 다른 판매할 수 있는 데를 뚫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신창제지에서 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예, 말하자면 스팀이 필요한 업체 자체가 국일제지까지 들어오는 스팀라인을 깔아놓은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쉬웠는데 마냥 썩맞게 엉뚱한 데 있다면 그 라인을 까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공급하기 어려운 이런 저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에 위원** 예,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 덕분에 아산시민들도 내가 보기에 조금 더 나은 행복 속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예, 감사합니다.

**○이기에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사장님 제가 조금 말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아산시가 커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업무들도 점차 점차 계속 늘고 있어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넘어가

는 업무요?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업무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인원 수 정원 대비 18명이 감소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잦아요.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열여덟 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다 가져가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거를 왜 다 정원들을 왜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이런 식입니다.

제가 3년을 근무하면서 대개 2~30명을 계속 결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버스를 하나 운영을 예를 들어 보면 버스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요.

그럼 일주일에 112시간이 버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52시간입니다.

그럼 두 사람을 투입하면 104시간, 8시간 때문에 사람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럼 버스 하나에 세 사람씩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8시간은 그 일을 하고 나머지 44시간, 한 사람은 또 44시간 남지 않습니까?

그 일은 버스 5대당 한 사람만 집어넣으면 44시간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버스당 세 사람씩 채우는 게 아니고 나머지 돌려막기 하자는 식이죠.

그렇게 하면 매년 예산이 올해 추경 예산도 보셨겠습니까만, 저희가 인건비

에서 근 2~3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반납도 했지만 저희 직원들 퇴직금 적립금에다가 올해도 15억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부담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어차피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라면 인건비 남은 걸로 퇴직연금에다 합산을 하자 해서 법으로 100%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걸 지금 저희가 한 109.6%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80억을 적립을 했고요.

80억을 내년부터 연 6% 정도의 이율로 은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6%면 이율만 4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게 24억을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4억 8천 빼면 18억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다 미리 적립을 해 놓으면 기관에서 부담하는 돈이 어차피 부담해야 될 돈이지만 그게 적어질 수 있다.

또 인력을 20명, 30명 정원 준대로 다 채용하다 보면 너무 방만하게 됩니다.

112시간 근무하는데 37명을, 3명을 쓰면 한 사람당 37시간을 근무하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이후에 근무하는 건 어차피 초과근무로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한 사람의 버스를 세 사람을 붙여 놓으면 한 사람이 37시간을 주당 일을 하면서 52시간의 급여를 받아간다.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정원은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을 적정하게 나눠서 배치를 하다

보면 18명, 20명 얼마든지 줄일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줄여왔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에 대해서는 높게 사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여기 통계치로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들어보니까 경영철학에 대해서 확고하시고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절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퇴직금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녹여주시면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종민**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원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 건 이미 양쪽 노조라든지 직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조금 더 봉사를 하자, 조금 더 근무를 하자, 법으로 내가 해야 되는 시간만큼 하고서 우리 몇몇하게 월급 받자,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제가 정원을 현원을 투입을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  
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이기에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방원  
주 무 관 김형선

○출석 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위생과장 안금선

○기타 참석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민